

사라져 가는 희귀식물(7)

도라지 (*Platycodon grandiflorum*)



글 : 김재황(詩人)

사진 : 김중권(본회 대의원)

나는 어렸을 적에 홀로 산길을 걷곤 했다. 그러다가 숲속에서 도라지를 만나면 얼마나 반가웠던지 모른다. 어찌보면 수줍음에 살짝 미소를 머금은 시골의 소녀같았다. 또 어찌보면 참선에 잠겨있는 비구니 같기도 했다. 나는 그때마다 발걸음을 차마 옮기지 못하고 그 주위를 서성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것처럼 흔하던 도라지가 지금은 만나기 어렵게 되었다. 그 고운 꽃을 사람들은 그대로 두지 않고 꺾어 가지고 가니, 어찌 남아날 수가 있겠는가. 요즘 어느 산악회 회원들은 산을 오르는 일보다 도라지 캐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지 누를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다.

도라지는 초롱꽃과에 딸린 여러해살이 풀이다. 산이나 들에 저절로 나는데 우리나라 각지를 비롯하여 중국 및 일본등지에 분포한다. 뿌리는 굵고 줄기는 하나이지만 여러대가 모여서 난다. 잎은 길게 둥글고 끝이 뾰족하며 가장자리에 톱니를 보인다. 잎자루는 거의 없다.

6월말에서 9월까지 줄기 끝에 자주빛이나 흰빛의 꽃을 피운다. 꽃모양이 종을 닮아서 아름답다. 열매는 거꾸로 된 잎꼴이다.

익으면 끝이 5조각으로 갈라진다. 종자는 길둥근 꼴인데 검고 번들거린다.

도라지는 일명 “길경”(桔梗)이라고도 부른다. 길러서 나물로 먹는다. 또한 약재로도 쓰이는데 복통, 지혈, 늑막염, 거담, 천식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옛날 어떤 마을에 먼 친척 오빠와 단둘이 살고 있는 ‘도라지’라는 처녀가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오빠가 중국땅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게 되었다. 오빠는 도라지를 홀로 집에 남겨둘 수가 없어서, 그가 잘 알고 지내는 스님에게 도라지를 맡기고 길을 떠났다.

하지만 1년이 가고, 10년이 지났어도 오빠는 돌아올 줄을 몰랐다. 들리는 말에는 오빠가 배를 타고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참변을 당했다고도 했다. 그래도 도라지는 바닷가로 나가서 오빠를 기다렸다. 몇날 며칠을 기다렸는지 뒤에서 도라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도라지가 반가움에 뒤를 돌아다 보는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 한떨기 도라지꽃으로 변하고 말았다. ♣